광주FC "내년에는 K리그1에서 만나요"

K리그2 4경기 남기고 승점 15점 차 … 최단기간 압도적인 우승
이정효 감독 "팬 응원 큰 힘 … 1부서 단단히 버티는 팀 만들겠다"

누구도 '우승후보'로 주목하지 않았던 광주FC가 압도적인 질주로 우승 샴페인을 터트렸다.

광주는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 1층 클럽하우스에서 이정효 감독, 주장 안영규 등 선수단과 김성규 사무처장 등 사무처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2022시즌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을 열었다.

광주는 전날 2위 FC안양의 패배로 2022시즌 K리그2 우승팀이 됐다.

안양은 지난 21일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28라운드 순연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4경기를 남겨둔 광주가 승점 15점 차로 앞서있는 만큼 우승이 확정됐다.

올 시즌 K리그2 홈 최다연승(10연승), 구단 최다승·최다승점(기존 20승·73점)을 작성했던 광주는 K리그2 최단 기간 조기 우승(기존 3경기) 기록도 갈아치우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만들었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1 최하위를 기록, 다시 한번 강등의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주포 펠리페가 중국 리그로 떠났고, '엄살라' 엄원상도 울산현대의 유니폼을 입는 등 광주의 우승을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즌을 앞두고 진행된 K리그 미디어데이에서도 광주는 '우승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감독으로 첫발을 내디딘 '초보 감독' 이정효 감독은 "광주를 신선한 시각과 에너지 넘치는 팀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다. 광주를 기대해줬으면 한다"고 야심 찬 출사표를 던졌다.

'악바리 축구'로 승격을 하겠다는 이정효 감독의 말은 현실이 됐다.

출발은 좋지 못했다. 광주는 안방에서 치른 신생팀 김포FC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충격의 패배였지만 오히려 '쓴 보약'으로 삼은 광주는 이내 1위 질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정효 감독은 4월 열린 5경기에서 4승 1무를 지휘하면서 광주를 1위에 올리고, '이달의 감독'에 선정됐다.

이후에도 광주는 특별한 위기 없이 우승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올 시즌 36경기를 치르는 동안 광주는 23승 9무 4패의 성적을 작성했다.

연패, 역전패도 없었다. 지난해 뒷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지만 올 시즌에는 '선제골=승리'라는 공식이 완성됐다.

75분 이후에는 실점도 없었다.

'주장' 안영규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가 광주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올 시즌 고향팀으로 복귀한 안영규는 미디어데이에서 "선수단 모두 최소 실점으로 리그를 마치고 싶다. 상대 팀들이 꺼리는 끈끈한 팀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FC 이정효 감독(왼쪽부터), 김성규 사무처장, 주장 안영규가 22일 구단 사무실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갖고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그리고 안영규는 자신의 각오를 지켰다. 36경기를 치르는 동안 광주는 30실점밖에 하지 않았다. 최소실점 2위인 안양·부천이 37실점.

무엇보다 이정효 감독의 용병술이 돋보였다.

시민구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각하는 플레이와 경쟁을 강조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했다. 폭넓은 기용으로 승리에 집중하고 또 체력이 떨어지는 여름에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정효 감독은 36경기에서 173회의 교체카드를 사용했다. 과감한 교체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전력을 더했다. 이와 함께 36경기에서 569명(경기당 평균 15.8명)이 광주의 승리를 위해 뛰었다.

'K리그 미래의 산실'답게 올 시즌에도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눈길 끈 프로 데뷔 시즌을 보낸 엄지성에 이어 올 시즌에는 금호고 출신의 정호연(21)이 단국대를 거쳐 광주의 '샛별'로 활약했다. 가장 많은 파울을 기록한 선수이자 가장 많은 파울을 당한 선수이기도 한 정호연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살림꾼' 역할을 했다. 33경기에 나온 그는 2골 1도움도 올렸다.

외국인 선수들도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헤이스가 팀 내 가장 많은 12골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광주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했고, 아론도 본업인 수비에서는 물론 공격에도 적극 가담해 3골 1도움을 올렸다. 마이키도 3골 2도움을 기록했고, 뒤늦게 광주에 합류한 산드로는 차원이 다른 실력으로 광주 우승에 쐐기를 박았다. 산드로는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39라운드 안양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는 등 5골 3도움을 올렸다.

예상을 깨고 '조기 우승'을 확정했지만 이정효 감독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시즌 내내 승리를 하고도 "만족은 없다"며 단순한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들여다 봤던 그는 K리그2 역사에 깨지 못할 기록을 남기겠다는 각오다.

K리그2 역대 최다승리와 승점이 이정효 감독이 올려보는 또 다른 목표다. 앞서 2017년 경남FC가 24승 79점을 만들며 기록을 가지고 있다. 23승, 78점의 광주는 남은 4경기에서 새 기록을 만들고,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정효 감독은 "우승을 향한 선수단의 간절함과 팬들의 열렬한 응원, 그리고 사무처의 전폭적인 지원이 우승에 큰 힘이 됐다"며 "많은 지원에 힘입어 1부리그에서 단단히 버틸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대표팀, 훈련은 즐겁게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22일 경기도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대표팀은 2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27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카메룬과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더 뜨겁게, the Reds

월드컵 대표팀 응원 슬로건

대한축구협회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응원 슬로건을 '더 뜨겁게, the Reds'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붉은 악마와 공동으로 공모전을 진행,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수한 4만2천여 개의 응모작 중 이 응원 문구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이정섭 협회 경영본부장은 이 문구에 대해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라 한국은 추운 날씨겠지만, 6월에 열렸던 기존의 어느 대회보다도 더 뜨거운 응원 열기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붉은 유니폼의 태극전사들이 중동의 사막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투혼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택된 슬로건은 대표팀의 현지 훈련 캠프, 미디어 센터 등에 부착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국내 거리 응원과 붉은 악마 서포터즈의 응원가, 각종 응원 물품 등에도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 응모 규모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보다 응모작 수가 12배가량 늘어나며 대표팀을 향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당선작을 제출한 임수정 씨에게는 조별리그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을 관전할 수 있도록 티켓 및 항공·숙박권이 제공된다.

월드컵 응원 슬로건은 Be the Reds(2002년), Reds go together(2006년), 승리의 함성, 하나된 한국(2010년), 즐겨라 대한민국(2014년), We, the Reds(2018년)가 채택된 바 있다.

/연합뉴스

윤중현 팔목 부상 '시즌 아웃' 갈 길 바쁜 KIA 불펜 초비상

KIA 타이거즈 불펜에 부상이 발생했다. 사이드암 윤중현이 왼쪽 팔목 유구골(갈고리뼈) 골절로 시즌을 마감했다.

KIA는 22일 창원NC파크에서 예정된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윤중현과 우완 남하준을 말소하고 우완 한승혁과 좌완 김기훈을 등록했다.

윤중현은 부상으로 인한 말소다.

윤중현은 전날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8회 팀의 4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윤중현은 1사 1루에서 이형종의 타구에 왼쪽 팔목 쪽을 맞았다.

공을 잡아 아웃카운트는 만들었지만 윤중현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남하준과 교체됐다. 그리고 22일 검진 결과 골절이 확인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윤중현은 23일 추가 검진을 받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뒷심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IA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상이다. 윤중현은 올 시즌 47경기에 나와 53.2이닝을 소화했다.

KIA는 최근 투타의 엇박자 속에 올 시즌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선발진이 초반 싸움을 해주고 있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주자는 나가지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불펜진도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책은 실점으로 연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을 위기의 팀이 됐다.

결국 KIA는 0.5경기 차까지 좁혀진 상황에서 22일부터 NC와 '운명의 3연전'을 펼치게 됐다.

최악의 분위기에서 윤중현의 부상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NC전은 사실상 2022시즌 5위 결정전이 될 전망이다.

KIA는 24일까지 NC와 3연전을 벌인 뒤 25일에는 대구로 이동해 삼성과 올 시즌 마지막 16차전을 치른다. KIA는 앞선 17·18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 2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윤중현이 9회에 LG 이형종의 타구에 손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5승 10패로 삼성에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리에A 나폴리서 활약 김민재 '유럽 프로축구 베스트 11' 선정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26)가 '유럽 프로축구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이 22일(한국시간) 발표한 2022-2023시즌 유럽 5대 리그 시즌 베스트 11을 보면 김민재는 평점 7.46을 받아 호제르 이바네스(AS 로마)와 함께 최후방 자원으로 낙점됐다.

이에 뱅자맹 파바르(바이에른 뮌헨·평점 7.77), 라미 벤세바이니(묀헨글라트바흐·평점 7.58)가 이들과 함께 포백을 이뤘다.

미드필드를 포함한 전방에는 세계 정상급 '슈퍼스타'들이 이름을 올렸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이상 파리 생제르맹),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요주아 키미히(바이에른 뮌헨)가 팀의 허리를 받치는 가운데 유럽 대표 '신구 골잡이'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가 투톱을 이뤘다.

골키퍼 자리는 평점 7.55를 받은 얀 조머(묀헨글라트바흐)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